

■ 위안부 문제 해결 제 800차 수요집회 참석 강진 '늦봄학교' 학생들

“日 정부 사과 그렇게 어렵나”

“일본 정부의 위안부에 대한 사과 없이는 한일 양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강진군 도암면 민덕리 백련사 가는 길목에 위치한 대안학교 '늦봄학교' 학생들은 지난달 13일 뜻깊은 행사에 참여했다. 정선대 문제 해결을 위한 제 800차 수요집회에 참가한 것이다.
수요집회는 1992년 1월 16일 첫 집회를 시작한 이래 16년 넘게 매주 수요일마다 대안학교 앞에서 열리는 집회로 이날 행사에는 늦봄학교 학생을 비롯, 100여명이 모였다.

집회에 참석한 늦봄학교 학생들은 위안부 할머니에게 보내는 낭독문을 통해 “위안부 문제는 우리가 일본에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한 것인데 왜 사과하지 않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고 반문했다.
이들이 800회 수요집회에 참가하게 된 배경은 지난해부터 위안부 할머니들과 맺어온 특별한 인연 때문이다.
학생들은 지난해 3월 역사수업 때 제시된 위안부 문제를 놓고 수업 후 집단 토론의 시간을 가졌고, 3시간에 걸친 마라톤 토론 끝에 위안부 할머니들을 직접 만나기로 결정했다.
학생들은 이후 지난해 4차례에 걸쳐 위안부 할머니들을 방문했다. 할머니들과의 만남을 통해 한 맺힌 사연과 일제의 만행, 뻔뻔함으로 일관한 일본 정부의 실상을 낱낱히 알게 됐다.
이후 학생들은 올해 3·1절을 앞두고 800회를 맞이한 수요집회의 참가 계획을 세웠다. 낭

한맺힌 사연 직접 듣고 상경
“사과 없는 한·일 미래 없어”
100여명 日 대사관앞 축구

독문은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김재욱(15·중2)군이 작성했다.
김 군은 “지난해 3월 위안부 할머니들을 처음으로 만나게 됐는데, 슬프고 억울한 우리 역사속에서 할머니들이 받은 고통이 자꾸 생각나 며칠 동안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조그마한 힘이나마 보태드리고자 이번 집회에 참가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군은 “우리가 일본의 사회를 주장하는 것은 과거가 없는 미래는 없기 때문”이라며 “한국과 일본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과거에 대한 일본의 사죄는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중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수요집회에서 강진 늦봄학교 학생들이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일본 정부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늦봄학교 제공>

지난 2006년 문을 연 늦봄학교는 재야 운동가인 고(故) 문익환 목사의 호인 늦봄에서 그 이름을 따왔다. 학교명칭에서 알 수 있듯 '늦봄'의 교육이념은 민족사랑과 통일정신을 가르치는 것이다.
늦봄학교는 1만6천529㎡ 부지에 황토교실, 한옥기숙사, 통나무집 소강당 등을 갖추고 전국에서 모인 학생 80명과 교사 20명이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며, 중학교 2년, 고교과정 2년, 진로 진학과정 2년 등 중·고 통합형 6년제로 운영되고 있다.
늦봄학교의 교육과정에는 민족교육이 특별 녹아들어 있다. 일반 교과 과정 외에 개설한 철

학수업은 매주 한차례씩 민족의식 등에 대한 주제로 수업이 이뤄진다. 또 매일 정규 수업 후 '생각나누기' 시간을 통해 ▲주한미군 범죄(사립, 환경 등) ▲아프간 피랍사건 ▲국가보안법 등 당시 이슈와 되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놓고 서로 고민하고 토론한 뒤 역사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기도 한다.
늦봄학교 역사 교사인 최루미(여·25)씨는 “수요집회 참석 등 모든 단체 활동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회의와 참여에서 출발한다”면서 “3·1절을 맞아 학생들의 요청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다시 한번 찾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나원침 (7446) 김종두



다 좋은 건국 창업자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제작 및 상담연행
▶ 서울본사 : 02) 3445-0943
▶ 나주광원 : 061) 337-0571

광주·전남 3·1절 행사 다채

제89주년 3·1절을 맞아 광주·전남에서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열린다.
광주시는 1일 오전 10시 시민회관에서 임우진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광복회원, 시민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1절 기념식을 갖는다.
시는 기념식을 마친 뒤 낮 12시 옛 전남도청 앞 민주의 종각에서 3·1운동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 광주유치를 기원하는 민주의 종 타종식을 갖는다.
시는 이날 하루 동안 광복회원과 유족들에게 시립민속박물관, 우치동물원, 시내버스,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광주일보사 주최로 이날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제43회 3·1절 전국마라톤대회에는 전국의 마라톤 동호인 등 8천여명이 참석, 3·1운동의 정신을 기린다.
전남도도 이날 오전 10시 목포시 민문화체육센터에서 3·1절 기념식을 갖고 시민의 종 타종식에 이어 독립유공자 및 유족위문 행사를 갖는다.
강진군에서는 전국 사이클 선수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5회 3·1절기념 강진군 일주 전국도로 사이클대회가 열린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남광주청년회의소(JC)는 제89주년 3·1절을 맞아 회원과 학생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달 29일 밤 광주시 남구 광주공원 앞에서 3·1 민세운동을 재연한 횡보시위를 가졌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오토바이 절도 잇따라 '철퇴'

최근 광주 도심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절도범죄들이 경찰에 잇따라 붙잡혔다.
광주북부경찰은 지난달 29일 가계 앞에 세워둔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광주 J고 2년 권모(17)군을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권군은 지난달 18일 새벽 2시50분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C치킨 집 앞길에 세워진 안모(여·35)씨의 125cc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이를 훔쳐 타고 달아난 혐의다.
광주서부경찰은 또 이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오토바이를 훔친 안모

(20·북구 두암동)씨를 절도 혐의로 붙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달 18일 새벽 2시40분께 서구 치평동 L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진 이모(22)씨의 50cc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다.
안씨는 지하주차장 CCTV에 일곱 등이 찍히는 바람에 경찰에 붙잡혔다.
북부경찰은 앞서 지난달 28일에도 북구 용봉동 한 교회 앞에서 조모(25)씨의 400cc 오토바이 키 박스를 조작해 훔쳐 타고 간 혐의로 체포(17)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횡보로 되살아난 3·1절

남광주청년회의소(JC)는 제89주년 3·1절을 맞아 회원과 학생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달 29일 밤 광주시 남구 광주공원 앞에서 3·1 민세운동을 재연한 횡보시위를 가졌다.

대학생들 “등록금 인상 공동 대응”

3일 전남대서 대책위 결성... 시민단체도 힘 보태기로
광주·전남지역 대학생들이 등록금 인상 등에 공동대응에 나서고, 시민사회 단체는 힘을 보태기로 했다.
21세기광주전남대학생연합, 광주전남지역총학생회연합,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등이 참가하는 '광주·전남대학생 교육대책위원회'(이하 광주전남교대위)는 오는 3일 전남대 1학생회관 앞 광장에서 결성식과 기자회견을 갖는다.
광주전남교대위는 출범 결의문을 통해 “대학생들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행동을 펼치기 위해

대학 새내기 47% “등록금 제일 걱정”

대학에 갓 입학한 새내기들은 대학 생활에서 가장 걱정되는 점으로 '등록금'을 꼽았다.
지난달 29일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포털 알바몬(www.albamon.com)에 따르면 올해 대학에 입학한 '08학번' 1천90명을 상대로 '입학을 앞두고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무엇인지 묻은 결과 응답자 중 가장 많은 47.3%가 '등록금'이라고 답했다.
'학점'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14.5%로 2위에 올랐고 '진로·취업'(11.8%), '교우관계'(10.7%) 등이 뒤를 이었으며 '학교 내 구타문제'를 꼽은 응답자도 6.4%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시내버스 기사 식비 체불 여전

광주 시내버스 회사들이 시의 운전기사 식비 지원금을 식당에 제때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아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광주시는 그러나 시내버스 회사들이 기사 식비를 지급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줄어드는 등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관내 10개 시내버스 회사가 기사식당에 지급하지 않은 기사 식사비가 2006년 12월 준공영제 시행 당시 약 3억 6천만 원에서 최근에는 약 2억 2천만 원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시는 준공영제 시행 이후 운전기사 식비를 포함한 복리후생비를 광주버스운송사업조합을 통해 버스회사

악성 코드 치료 명목 92억 뜯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이재영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컴퓨터의 단순 텍스트파일을 '악성 코드'라고 속여 치료 명목으로 126만명으로부터 9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닥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배로 업체 대표 이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5년 7월 중순부터 2007년 6월 말까지 이 프로그램이 검출하는 악성 코드의 숫자를 늘려 결제율을 높이기 위해 정상 파일이거나 컴퓨터에 아무런 영향도 없는 단순 텍스트파일에 불과한 소위 '트래킹 쿠키'를 악성 코드로 분류하도록 해 치료 명목으로 건당 800원

여수 백도 해상 시신 발견

여수 백도 해상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 시신이 발견됐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3시에 여수시 삼산면 백도 동쪽 14.5km 해상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 시신 한 구가 발견됐다.
시신을 발견한 새우조망 어선 백모산장은 “그물을 올리보니 남자가 검은색 정복을 입은 채로 숨겨 있었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시신을 병원으로 옮겨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계획이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불법 폭력시위 주동 민주노동당 구속

광주서부경찰은 지난달 29일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동한 민주노동당 광주본부 조직국장 정모(34)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6월 29일 광주시청 앞에서 한미FTA 반대 시위를 벌이던 중 경찰버스 7대와 신호등을 파손해 74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히고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문모(20)이 경정 등 정경 8명에게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얼굴만 가리고 치는 못 가린 절도범

경찰은 흉터를 숨기기 위해 헬멧을 쓰고 현금을 인출한 30대가 우체국 안에 설치된 CCTV에 자신이 몰고 온 차량이 찍히는 바람에 달미.
○강진경찰은 지난달 29일 빈 농가에 들어가 비밀번호가 적힌 통장을 훔쳐 현금을 빼내 쓴 이모(38)씨를 특가법상 절도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8일 강진군 칠량면 강모(69)씨 집 등 빈 집 두곳에 몰래 들어가 통장을 훔친 뒤 인근 우체국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850만원을 인출해 달아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CCTV에 얼굴 등이 찍히는 것을 막기 위해 인근에 세워진 오토바이에서 헬멧을 훔쳐 썼는데, 경찰에서 “몰고 온 승용차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산들산들 봄바람
고기압의 영향을 받았으며 대체로 맑았다.
3월 1일 (음 1월 24일)
날씨
광주: 구름 조금 -1~10C
안동: 구름 조금 1~9C
영주: 구름 조금 2~10C
영천: 구름 조금 1~10C
구미: 구름 조금 -3~10C
해남: 구름 조금 -3~10C
장흥: 구름 조금 -3~11C
고흥: 구름 조금 1~11C
순천: 구름 조금 -2~11C
영광: 구름 조금 -2~8C
전진: 구름 조금 1~10C
전주: 구름 조금 -2~10C
남원: 구름 조금 -4~10C
홍산: 구름 조금 3~9C
서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5~2.5m
면바다=서·북서풍 파고 1.5~3.0m
남해서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0~2.0m
면바다=서·북서풍 파고 1.0~3.0m
목포 밀물 < 08:16 썰물 < 00:12
목포 밀물 < 20:02 썰물 < 15:21
여수 밀물 < 03:32 썰물 < 11:06
여수 밀물 < 15:07 썰물 < 21:52
▲해돋이 07:02 ▲해질 18:28 ▲달돋 02:28 ▲달질 11:51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